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9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14일(음 3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 공부하는 데는 팡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문 저는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서 가정생활이 힘듭니다. 별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니 자꾸 눈물만 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되고,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는 알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기 때문에 모르고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거를 못 보시길랑 지금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도 과거니까요. 그러니 내가 해 놓은 거 내가 받게 마련이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뺏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서든 자기가 모르고 했던 일도 알았을 때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에서 나오는 것을 중요를 한다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왜? 이젠 내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호소해야 합니다. 이들에게서 그것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내가, 자기 주인공에 호소함으로써 거기서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부터 모든 단속을 해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거지, 안에서 단속을 안 하고 집을 비워 둔다면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에게 내가 몰락 일임하고 믿는다면, 안의 생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자기 마음의 부하가 돼 있듯이, 먹고 싶다면 손이 가서 먹게 해 주듯이 말입니다. 이것도 부하입니다. 자기의 종이예요. 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기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여기서 한 거니까 여기서 해결해야지' 하고서 자기한테 호소하고 일임하고 놔 버린다면, 진정코 믿고 놔 버린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더러 자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착해지는 겁니다. 나의 대상들이 다 나를 도와주게 되고 착하게 되고요, 내 몸 내가 챙기듯이.

우리가 이 뱃속에, 육신 속에 있는 이 벌레를 다 끄집어 내놓는다면 구역질이 나서 못 견뎌요. 내가 가래침을 안에 뒀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벌



그림 · 최주현

어 놓고 보십시오. 되집어 먹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어느 벌레를 봐도 아이구,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죠. 그 더러운 벌레, 징그러운 그 모습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에게 모든 걸 일임시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누구든지 도와드리고요. 아이구, 딴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럼으로써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그 상대방에게도 충전이 돼서 그 사람네들도 마음이 밝아지고 그 사람네들도 착해질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무주상 보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불을 당기니까 거기서도 불이 들어오는 거죠. 충전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것이 없으면서도 아주 행

복하죠.

그런 도리를 아시고 다시는 울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이 마음에, 그게 내가 참 고마워서 우는 거하고 그냥 남을 증오하고 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남을 원망하고 우는 거 다르고 사랑해서 우는 거 다르고, 여러 가지가지죠. 눈물도.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렇게 마음을 잘 돌리면서 운행을 한다면, 운전수가 몸을 끌고 다니는 데도 잘 끌고 다닐 것이요. 바로 기쁨도, 내가 항상 무한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아량이 풍부하고 사랑, 자비가 풍부함으로써 어느 걸 보더라도 부처 아님이 없게 되고, 어느 걸 보더라도 나 아님이 없게 되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이 생각이 들게 하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아무리 파탄이 생긴다 할지라도 파탄을 앓고 살리게 되고 견지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것도 또 이렇게 보살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맡겨 놓는 공부를 배워서 실천해 보신다면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문 아직까지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는 어른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도랑 없는 도랑이라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들어갔던 구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구멍으로 나왔을 때 돈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탑을 쌓을 때 쌓는 과정과 한 찰나에 봉우리 울리는 거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봉우리가 없다면 탑이 없고 탑이 없다면 봉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둘 다 따로따로 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들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돈오가 마음이고 점수가 몸이라면 어떻게 그걸 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남들이 그러더라도 '야, 돈오와 점수가 어찌 들어갔느냐? 어떻게 열음과 물과 들어갔느냐? 그러지 말라. 통물이나 구정물이나 찌꺼기나 모두 한데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짙는 것이니라. 통물에도 짙고 구정물에도 짙고 다 짙는, 말을 하자면 이쯤해서 그것도 짙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야, 돈오가 옳으니 점수가 옳으니 이라고 싸움을 해야만 옳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확실적으로 그런다면 싸움이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뜻으로서, 선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언어도 불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아니, 열음입니까 물입니까? 물이 옳습니까, 열음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궁무진하다 이겁니다. 글쎄, 우리가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선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견성이라는 거는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은 거와 같고 또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또는 교양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우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에 딱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나설 때는 돈오지하는 그것을 배울 때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와 돈오가 들어갔습니까.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이런 예도 있었죠. 잘못 하시겠지만 경허 스님도 아주 대강백으로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경전이라는 경전은 무불통지하고요. 그랬는데 괴질이 도는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가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죽으니깐 빨리 달아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 가도 그러고 저 집 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심이 고약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괴질이 들어서 사람이 전부 쓰러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와 지혜의 눈 출판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비유하여 진리를 전하는 궁극의 말씀 『궁지 백유경 1』



- 불도 수행 중에 무심코 빠져들게 되는 착각과 교만함으로 인해 깨달음의 문 앞에서 좌절을 겪게 되는 이들에게 오류를 지적하고, 그를 타파해주는 법정을 담고 있다.
- 지금까지 교훈적인 동화로만 알려졌던 변역·출판되어 온 백유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이각륜스님의 날카로운 해석으로 각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불법의 요체를 낱말이 밝혔다.

이각륜스님 역해 / 금적 · 해빙 역음 / 정가 20,000원 / 2010. 1. 5. 초판발행 / 양장 348p
도서출판 지혜의눈 Tel. 054-541-2057 / Fax. 054-541-9030

YES24.COM www.yes24.com www.yes24.com www.yes24.com

읽고 따라가기만 해도 모든 고통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 『불멸』



- 『불멸』은 모든 인지현상의 주체인 "나"에 대한 영역을 간파하는 과학의 한계성을 자신 있게 역설하고, 생(生)과 사(死), 나와 남,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질적인 두 우주를 어떤 방법으로 통합시키고 다시 초월하는지 그 이치와 과정을 완벽하게 파헤친다.
- 『불멸』은 현재까지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 담겨있다. 특히 불가(佛家)에 몸담은 승려로서 오늘날 불교의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불교의 교리로 복귀, 승화시키는 탁월한 논리를 보여준다.

이각륜스님 서술 / 보만 · 화연 역음 / 정가 25,000원 / 2006. 12. 26 초판발행 / 524p
도서출판 지혜의눈 Tel. 054-541-2057 / Fax. 054-541-9030

YES24.COM www.yes24.com www.yes24.com www.yes24.com